

- **주요 뉴스:** 중국恒大그룹의 채무불이행 미국 리만 사태와는 금융시장 충격 수준이 상이
 -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, 미국 경제는 오미크론 영향을 극복할 전망
 - ECB 부총재,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수준 하락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 필요할 가능성
 - 일본은행 부총재, 저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의 조정은 불필요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오미크론 관련 긍정적 백신 실험결과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주가 상승[+0.3%], 달러화 약세[-0.4%], 금리 상승[+5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의 강세 등이 견인
 유로 Stoxx600지수는 코로나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0.6% 하락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
 유로화가치는 0.7% 상승, 엔화는 0.1% 절하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회복 기대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 국채 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7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3.1원, -3.2원) -0.3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12/8일	12/7일	전일대비			12/8일	12/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701.2	4,686.8	0.31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2%	1.47%	5bp
	유럽	477.36	480.18	-0.59%		독일	-0.31%	-0.38%	7bp
	중국	3,637.6	3,595.1	1.18%	CDS 5y	한국	21bp	20bp	1bp
	일본	28,861	28,456	1.42%		중국	48bp	48bp	0bp
	한국	3,001.8	2,991.7	0.34%	위험 지표	EMBI+	-	383	-
환율	달러지수	95.95	96.37	-0.43%		VIX	19.90	21.89	-9.09%
	유로화	1.1343	1.1267	0.67%		WTI유	72.36	72.05	0.43%
	엔화	113.67	113.60	-0.06%	원자재	구리	438.1	433.8	0.98%
	위안화	6.3442	6.3663	0.35%		금	1,783.0	1,784.1	-0.06%
	원화	1,175.9	1,179.5	0.3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중국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, 미국 리만 사태와는 금융시장 충격 수준이 상이

- 금년 초부터 헝다그룹의 부실 문제가 미국의 리만 사태와 같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. 하지만 12/8일(수) CSI300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,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역시 2018년 5월 이후 최고 수준
- 이와 같이 헝다그룹이 채무상환에 실패했으나, 금융시장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. 이는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. 실제로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섰고,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유동성 공급 확대 신호를 발신
- 또한 정부는 무질서한 파산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채무조정을 추진. 이러한 조치들로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. 씨티그룹의 Li-Gang Liu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
- 일부에서는 다른 부동산 기업도 채무불이행을 겪으면 투자자 피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. 다만 홍콩 자산운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회복에 대한 기대도 낮기에, 추가적인 공황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, 미국 경제는 오미크론 영향을 극복할 전망

- 라우즈 위원장은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오미크론의 확산과 추가적인 봉쇄 조치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. 또한 바이러스 감염 관련 최근의 상황이 1년 전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부연

■ 미국 10월 JOLTS 구인건수, 전월 대비 증가. 구인난 심화를 시사

- 같은 달 구인건수는 1103만건으로 전월(1060만건) 대비 증가. 최근 고용은 둔화되는 반면 구인건수는 증가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

■ JP모건, 2022년 코로나 종식 및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예상

-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등으로 경기회복이 강화되고 세계적인 인적 및 물적자원의 이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. 한편 미국 S&P500 지수와 신흥국 주가는 현 수준보다 각각 8%, 18% 상승할 것으로 기대

■ ECB 부총재,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수준 하락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 필요할 가능성

- 데 쿼도스 부총재는 내년 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하반기에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고 발언. 한편 2022년에는 임금상승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부연
- 핀란드 중앙은행 레인 총재는 ECB가 다음 정책조치 결정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. 라트비아 중앙은행 카자크스 총재는 오미크론이 유로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 없다는 의견 피력
- 슈나벨 이사는 경기회복으로 자산매입프로그램에 따른 장점이 사라지는 반면 과도한 자산가격 상승 등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

■ 일본은행 부총재, 저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의 조정은 불필요

- 아마미야 부총재는 내년에 공급차질 등이 해소되면서 경제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. 다만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, 향후 많은 기업들이 제품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첨언
-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임금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. 이는 기시다 정부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. 반면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고 진단

■ 인도 중앙은행, 주요 정책금리 동결. 경제성장이 최우선 과제

- 레포금리를 이전과 동일한 4%로 결정. 통화정책위원회는 자생적인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.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시장의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트(12/8 현지시각 기준)

- 일본 3/4분기 성장률(수정치,전기비): -0.9%, 2/4분기(0.4%), 속보치(-0.8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10월 도매재고
- 독일 10월 무역수지, 중국 11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통화정책, 12월 FOMC 결과는 시장에 충격을 미칠 가능성 - 블룸버그

(The Next Fed Meeting Will Offer More Surprises)

- 연준의 12월 FOMC는 자산매입 축소 가속화 뿐 아니라, 시장에서 아직 예상하지 못한 향후 3년간의 긴축강화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. 이는 이르면 2022년 3월 기준금리 인상 여지를 확보하고,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방편
- 금리선물은 내년 2~3회(각 0.25%p) 금리인상을 예고.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, 이러한 금리인상 가속화 신호는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. 금리인상 전망 수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여파는 증폭될 소지

■ 미국 바이든 행정부, 국익 향상을 위해 중국과의 대화 재개가 필요 - Financial Times

(Joe Biden must build on his dialogue with Xi Jinping)

- 최근 미·중 정상회담의 화상회담이 실패했다는 평가로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관련하여 딜레마에 직면.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도 중국과의 무역 논의 및 집행 등은 효과가 없었으며, 이는 트럼프 시대의 실패가 연장된 것이라고 지적
-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강경파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 대신 실리적 관점에서의 대화가 더욱 중요. 이에 기후, 전염병, 무역 호혜성과 규칙, 국제금융 변동성 대응, 신흥국 부채조정 등 양국이 상호 이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분야로의 접근이 요구

■ 미국의 인플레이션, 고전적 모델과 상이한 수요·공급 양자문제로 해결은 난망 - WSJ

(This Inflation Defies the Old Models)

■ 일본은행의 물가상승 대응 강화 전망, 엔화 약세 기조의 종료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Japanese apprehension over rising prices hangs over the yen)

■ 미국 의회의 부채한도 확대,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불씨 - 블룸버그

(One Cheer for Another Ugly Debt-Limit Deal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